

'92년도 국내외 경제전망

평 동 준
한국은행 조사부 부부장

1. '92년도 해외경제전망

1) 경제성장 및 물가

1992년중 선진국 경제는 미국경기의 회복이 예상외로 지연되는 가운데 일본과 독일의 성장세도 현저히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의 회복이 미약함에 따라 2% 내외의 저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일본은 설비투자 전망의 불투명으로 성장둔화가 두드러지고, 독일도 금융긴축 지속과 통독특수의 진정 등으로 1.5~2% 수준의 낮은 성장률을 나타낼 전망이다.

개도국의 경제는 아시아 NIEs의 성장지속, 중동지역의 전후 복구사업 및 원유증산, 동구제국의 성장회복 등에 힘입어 '90~'91년중의

저성장에서 벗어나 3~4%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선진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유가안정 등에 힘입어 금년보다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1990	1991e)			1992e)		
		IMF	OECD	野村研	IMF	OECD	野村研
세계경제성장률	2.2	0.9	-	-	2.8	-	-
선진국	2.6	1.3	-	1.0	2.8	2.3	2.0
(미국)	1.0	-0.3	0.2-0.5	-0.3	3.0	2.5	1.8
(일본)	5.6	4.5	4.6	4.6	3.4	2.5	2.0
(독일)	4.5	3.1	3.5	0.7	2.0	2.1	1.7
개도국	1.0	-0.6	-	-	2.9	-	-
(아시아 ^a NIEs)	6.7	6.2	-	6.4	6.1	-	6.2
선진국소비자 물가상승률	4.9	4.5	-	4.8	3.8	-	4.0

주: 1) IMF, OECD는 구서독, 野村研은 통일독일 기준

2) IMF는 동구제국과 소련을 포함

3) 野村研은 ASEAN을 포함

자료: IMF 및 野村종합연구소(91.10), OECD(91.11)

2) 세계교역 및 경상수지

1992년중 세계교역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금년 수준보다 크게 확대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1988년 이후 다소 개선되어 오던 주요 선진국간 대외불균형은 1992년중 다시 확대될 전망으로 '91년중 걸프전비 수입으로 크게 줄어 들었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92년에 다시 '90년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경상수지는 '91년과 비슷한 60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도국의 경상수지는 석유수출 호조에 따른 중동지역의 경상수지 개선으로 적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3) 국제금리 및 환율

'92년중 미달러화는 미국의 경기회복 미약으로 완만한 약세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 따른 주요 선

세계 경상수지 전망

(단위 : 억달러)

	1990	1991 e)		1992 e)	
		IMF	WEFA	IMF	WEFA
신진국	-975	-337	-434	-965	-955
미국	-921	-176	-115	-920	-741
일본	358	627	556	594	650
독일 ¹⁾	479	-81	-170	94	-82
개도국	-246	-1,038	-437	-642	-379

주 : IMF는 1990년 6월말까지는 구서독 기준, 이후는 통일독일 기준, WEFA는 통일독일 기준

자료 : IMF, WEFA (91, 10)

진국으로부터의 엔고유도 압력, 미야자와 내각에 대한 높은 신속도 등을 배경으로 엔화는 대체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마르크화는 상반기중에는 대체로 강세를 유지하겠으나 하반기 이후 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92년중 미국금리는 완만한 상승을 지속하는 반면 일본과 독일금리는 하락하는 등 국별로 상이한 모습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는 연준의 재할인을 추가인하 가능성으로 1/4분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겠으나 2/4분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금리는 경기둔화에 따른 일본은행의 금융완화로 연중 완만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금리는 상반기까지는 물가상승 압력의 상존으로 금융긴축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높은

국제금리 전망

(단위 : 연, %)

	1991				1992 e)			
	1/4	2/4	3/4	4/4e)	1/4	2/4	3/4	4/4
미국 ¹⁾	6.70	6.05	5.70	5.09	5.02	5.25	5.41	5.54
일본 ²⁾	8.25	7.88	7.38	6.70	6.50	6.25	6.25	6.25
독일 ³⁾	8.66	8.59	8.62	8.66	8.67	8.67	7.57	7.47

주 : 모든 수치는 기간 평균임.

1) 3개월물 CD, 2) 단기프라임레이트, 3) 콜금리

자료 : WEFA (91, 11), 아촌총합연구소 (91, 10)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들어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4) 국제원자재가격

'92년중 국제원유가격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경기 회복으로 원유 수요는 다소 늘어나겠으나 중동산유국의 전후 복구 자금조달을 위한 증산으로 공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원유를 제외한 기타 주요 원자재가격은 지난 3년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식료품가격은 주요 곡

국제 원자재 가격 전망

(전년대비증락률, %)

	1990	1991 e)	1992 e)
원유	28.2	-16.4	1.0
(US\$/bbl)	(22.05)	(18.43)	(18.61)
기타 주요원자재	-7.9	-5.7	3.3

주 : 1) 모든 수치는 기간 평균임

2) Brent, Bubai, Alaska North Slope유 현물물가 평균

자료 : IMF (91, 10)

물생산국인 미국, 중국, 호주 등에서의 작황 부진으로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비철금속 가격도 세계경기의 회복과 더불어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폭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2. 국내 경제전망

1) 경제성장

금년보다 다소 둔화되나 높은 수준이 예상되는데 민간소비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로 전체적으로 둔화될 것이며 설비투자도 경기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금년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국제수지

경상수지는 금년에 이어 큰 폭의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출은 선진국 경기의 회복지연으로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입은 소비 등 내수의 높은 증가로 여전히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역의 이전수지는 각종 용역수입 및 해외송금유입의 증가 등에 힘입어 적자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3) 물가

도매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수

입코스트 증가, 임금상승, 물류비용의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오름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물가는 선거, 공공요금의 인상 등에 기인하여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4) 고용

실업률은 대체로 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거의 경향으로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정책방향

내년도 국내경제는 경제성장률이 금년보다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와 높은 물가상승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에도 국제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가 낮아져 향후경제정책 운용에 중대한 제약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내년도 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방어에 최우선을 두어 운용하여 이를 위해서 통화 및 재정정책의 안정적 운용을 통하여 총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임금안정을 적극 유도하여 소비절약 노력을 강화하여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